

박선호 차관, “혁신도시 성공이 지역과 국가균형발전 핵심” 강조 27일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간담회·발전재단 설립지역인재 양성 등 협력방안 논의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27일(화) 강원 혁신도시를 찾아 관할 지자체 및 이전 공공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강원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,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 및 정주 여건 등을 점검했다.

- 이날 간담회에서 강원도(김민재 기획조정실장)에서는 강원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추진현황 및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오픈 캠퍼스에 대해 설명하고, 지역 전략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.
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(김승택 원장)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들도 이주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건의하면서, 공공기관들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.

 - 이에, 박 차관은 “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성공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“혁신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「강원혁신도시 발전재단」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, 향후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기금 조성과 혁신도시에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”했다.

 - 아울러, “지역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의 공동 연구 및 오픈캠퍼스 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대학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”고 밝히며,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.

- 또한, 박 차관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있는 민간 지식

산업센터(H타워, 38개社 입주)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,

- “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밝히며, “국토부가 7월부터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원주사에서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2019. 8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